

## 전도란 하나의 활동이 아니라 생활양식

강다애(일신교회)

여러분은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 기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새로운 시대, 천일국 주인의 자리에 세워주겠다고 하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백성이 없는 임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종족메시아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일국 백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 주어진 책임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못 한 사람은 미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14.11.12.천정궁)

식구님 여러분은 ‘전도하라’는 참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전도를 하는 건 내 인생의 행복이야!’라며 기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천일국을 위해서라면 전도 할 수밖에 없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고 신종족메시아의 사명을 다하려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전도? 굳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 3월, 저는 전문대학교 신학순결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전공이 신학과다 보니 참부모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의 참어머님 말씀도 말이죠. ‘전도하라’는 참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며 ‘해야지. 해야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잘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카프 동아리의 오리엔테이션을 들으러 가 보았지만 결국 저 스스로 ‘시간이 없을 것 같다. 바쁠 것 같다.’ 등 전도활동 하는 것을 자꾸만 미뤘습니다. 그래도 ‘생활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생각하여 교양과목 시간에 영계에 관한 주제를 일부러 선택하여 참부모님 말씀을 학우들에게 전한다거나, 주변의 통일교회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원리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마음이 제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선교를 가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언어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5개월 간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필리핀은 국교가 가톨릭이라 그런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원리말씀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해야 할 영어공부는 안 하고, ‘나는 필리핀에 선교 온 선교사다.’란 마음을 가지고 원리에 관심을 가지는 필리핀 선생님에게 원리강의를 영어로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해외선교의 불타는 의지를 더 해줬습니다.

2018년 추운 겨울, 우선 만물복귀로 내적인 정비를 다지고, 그 기반 위에 학과 주관으로 미국 로스엔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에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해외선교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부푼 마음을 갖고 캠퍼스 전도 노정에 투입했습니다.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다.’는 마음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어프로치를 할 때마다 간절해지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대학가에서 어머니와 딸이 함께 전도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쩔 하늘을 중심하고 같이 나갈까. 그 모습을 보는 하늘부모님께서 참 대

견스러워 하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에서의 대학가 전도 시스템은 먼저 어프로를 하고, 대상자와 원리강론 혼독 약속을 잡는 것입니다. 드디어 저도 제 스스로의 힘으로 약속을 잡아냈습니다. 그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 못합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제 마음은 설렘 반, 긴장 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시간이 10분이나 지나도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올 거야. 왜냐하면 약속을 잡을 때, 그 친구는 원리강론에 흥미 있어 보였거든. 내게 미소도 지어줬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분이 지나고 결국 30분이 지나서야 저는 절망했습니다. 도무지 대상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오지 않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제 마음이 찌릿 저러왔습니다.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인류를 잃어버렸을 때의 하늘부모님의 그 슬픈 심정을. 하늘부모님께서 사랑하는 자식을 대할 때, 말을 걸고 싶고, 안아주고 싶으셨지만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인류를 보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셨을까. 나는 지금 이 한 번으로 이렇게 힘든데, 하늘부모님은 6천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어떻게 참으셨는가. ‘전도를 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없다.’는 참부모님의 말씀이 내 몸 속으로 체휼되는 순간이었지요. 그래서 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하늘부모님의 대신자니까. 내가 실체가 없는 하늘부모님을 대신해야 할 사람이니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약속이 잘 안되고 나서 그 이후로도 약속이 잘 안 잡혔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하늘에 대한 불변의 심정으로 투입하면, 다음에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또 하나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공직자의 말씀을 들으며 힘을 냈습니다. 저의 이런 믿음의 기대가 쌓였는지 어느 순간부터 약속을 잡으면 대상자가 정말로 와줬습니다. 그리고 원리강론을 같이 소리내어 혼독하며 이해를 도왔죠. 이 모든 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한 것이라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제가 육체적으로 피곤하여 정성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날에는 대상자와의 약속이 취소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계가 정말 있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선교활동이 거의 끝나갈 즈음, 저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선교지인 미국에서만 전도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요. 하지만 한국에서 전도하는 것이 솔직히 저도 모르게 두려웠습니다. 선문대학교에서의 전도 방식은 미국에서의 어프로치 시스템과 많이 달랐고, 설사 전도를 한다고 해도 저 혼자뿐인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서 매일 아침 혼독회를 진행하는데, 그 당시 빙 둘러앉아 참여머님 말씀을 옆으로 둘러가며 혼독했습니다. 제가 읽어야 하는 파트마다 ‘전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늘이 주시는 말씀인가?’ 그리고 나선 ‘나 혼자서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는 고민에 점점 빠졌습니다. 그 후 “아버님도 혼자였다. 홀로 미국 가서서 섭리하신 것이다.”는 참여머님 말씀이 제 머리를 광 하고 내려찍었습니다. 온 몸에 전율이 돌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하늘의 뜻을 알면서도 그저 개인적인 두려운 마음 때문에 피하려 하는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또 공직자께서 참여머님께서 선문대 복귀하라는 말씀을 최근에 하셨으니 영계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선문대에서 전도하라고도 격려해주셨습니다. ‘참여머님과 하나 되면, 두려울 것이 없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마음을 굳건히 다졌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돌아와서 2018년 10월, 선문대에서도 미국에서의 동일한 방식으로 전의 미국 선교 팀원이었던 친구 한명과 전도를 나갔습니다. 정말 참여머님께서 준비하신 기반인지 한국인 대상자와 약속을 바로 잡을 수 있었고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매주 그

대상자와 원리강론을 혼동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대상자가 다음 학기에도 원리강론 혼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이 소문이 났는지, 조금 씩 저희와 뜻을 함께 하고 싶다는 2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결국 2명에서 13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늘이 뜻을 함께 할 동지를 보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도란 하나의 활동이 아니라 생활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 가기 전까지는 전도가 밖에 단순히 어프로치 하고, 조금은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생각이 180도 완전히 뒤집어 졌습니다. 오늘 처음 본 사람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어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전도이며, 우리 팀원들을 위해 공적인 의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전도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선교가 끝날 때, 하늘부모님이 우리를 전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도 체휼했습니다. 비전 2020이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제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참부모님이 바라시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답을 얻었고, 저는 그래서 전도를 계속 나갈 것입니다.